

최근 우리 경제의 위상 변화에 대한 논의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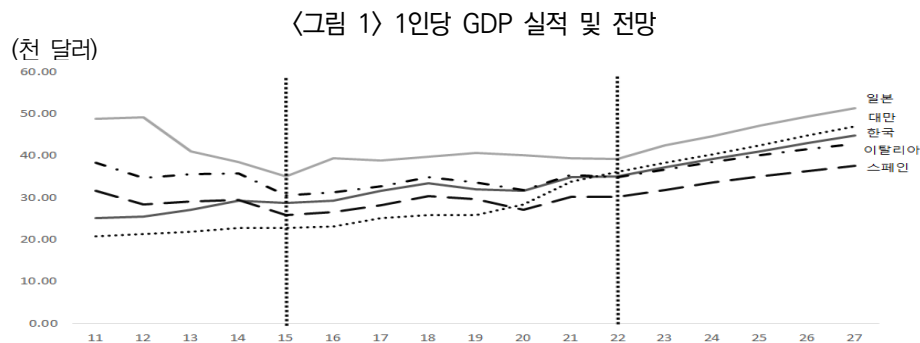
- 1인당 GDP에 있어서 2015년 스페인을 추월한 우리나라는 2022년에는 이탈리아를 넘어서는 반면, 대만에게는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 본고는 1인당 GDP뿐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국가 능력인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 변화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1인당 GDP를 등수의 개념으로 전환할 경우, 우리나라는 2015년 이래 30위권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상승세, 이탈리아, 스페인, 홍콩 등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경쟁력 순위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대만은 상승세, 일본, 홍콩,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1인당 GDP와 국가경쟁력 순위가 모두 상승한 국가는 대만이며, 모두 횡보한 국가는 한국, 싱가포르, 그리고 모두 하락한 국가는 이탈리아, 홍콩 등임
 - 일본의 경우 1인당 GDP 순위는 횡보, 국가경쟁력 순위는 하락세이며, 스페인은 1인당 GDP 순위는 하락세, 국가경쟁력 순위는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만의 1인당 GDP가 빠르게 상승한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국가경쟁력의 순위 변화를 세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대만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고르게 경쟁력 순위가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는 순위가 상승한 세부 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나, 순위가 하락한 항목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 순위는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1인당 GDP나 국가경쟁력 순위 모두 사실상 정체되어 있으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선진국에서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상승세인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재정, 노동시장 등 세부 항목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1. 1인당 GDP 변화 추이 평가

○ 1인당 GDP에 있어서 2015년 스페인을 추월한 우리나라는 2022년에는 이탈리아를 넘어서는 반면, 대만에게는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그림 1〉 참조)

- 2022년 4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022년 이탈리아를 추월¹⁾하여 2027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전망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1인당 GDP에 있어서 2015년 스페인을 넘어서는 이후 이탈리아까지 추월하게 되기 때문에 유럽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됨
- 반면, 대만의 경우는 우리나라를 2022년에 추월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80년대 아시아 4마리 용 중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게 됨
 - 이러한 타이완의 성장에 대해서 TSMC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붐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의견도 있으며, 대만 경제의 구조적인 개선이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음



주: 실적치는 주로 2019년(이탈리아), 2020년(한국), 2021년(대만) 등이며,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IMF(2022. 4). *World Economic Outlook*

○ 본고는 1인당 GDP뿐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국가²⁾ 능력인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경제적 위상이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며 선진화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상기의 전망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상대적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됨
- 본고는 1인당 GDP의 변화를 순위의 개념으로 파악해보고, 이를 국가경쟁력 순위와 연계하여 이탈리아, 대만 등 관심 국가들과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함
- 또한, 최근 1인당 GDP가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대만과 우리나라와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비교를 통해서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1) IMF가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020년대 초 이탈리아를 추월할 가능성을 전망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중반부터였음

2) 본고가 언급한 '국가'의 의미는 IMF, IMD 등이 경제지표나 경쟁력지표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고 있는 독립적인 경제단위를 의미함



2. 1인당 GDP 순위 vs. 국가경쟁력 순위

- 1인당 GDP를 등수의 개념으로 전환할 경우, 우리나라는 30위권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상승세, 이탈리아, 스페인, 홍콩 등은 하락세인 것으로 판단됨(〈표 1〉 참조)
 - 1인당 GDP는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순위를 산출³⁾하여 비교하였음
 - 〈그림 1〉에 포함된 국가와 더불어 과거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렸던 싱가포르, 홍콩도 포함하여 논의함
 - 우리나라의 순위는 전체적으로 30위권 초반에서, 일본의 순위는 20위권 중후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대만의 순위는 2019년 40위에서 2022년 31위로 우리나라를 추월하고 2027년에는 2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순위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본고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만, 이탈리아, 스페인 등 관심 국가의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가 같은 기간 어떻게 나타났는지 비교해보고자 함

〈표 1〉 1인당 GDP 실적 및 전망 순위

(196개국 중 순위)

구분	2015	2017	2019	2022(F)	2027(F)	변화 추이
한국(Korea)	32	30	31	32	30	—
대만(Taiwan, China)	38	38	40	31	28	▲
이탈리아(Italy)	30	29	29	33	34	▽
일본(Japan)	27	27	27	28	26	—
홍콩(Hong Kong, SAR)	19	16	16	23	21	▽
싱가포르(Singapore)	8	7	7	7	6	—
스페인(Spain)	35	34	34	38	38	▽

주: ▲ 순위 상승, — 정체 또는 횡보, ▽ 하락 등은 개략적인 주관적 판단임

자료: IMF(2022. 4), *World Economic Outlook*

- 주요 국가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가경쟁력지수의 순위 변화를 파악해보고자 함
 - 매년 IMD 국가경쟁력보고서가 발간되면 정책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 자료⁴⁾를 작성할 만큼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⁵⁾되고 있는 지표임
 -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63개국을 대상으로 4개 분야(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에 대해서 총 1

3) 일반적으로 IMF는 196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각 연도마다 정치적 혼란 등 이유로 제외되는 국가들이 있음.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레바논, 우크라이나, 튀니지아, 베네수엘라 등이 해당됨. 다만, 이들 국가들은 본고의 비교 대상 국가들의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4) 기획재정부(2022. 6), 「2022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5) World Economic Forum에서도 IMD와 유사한 국가경쟁력지표를 발표하여 널리 인용되었으나, 2019년 이후 발표가 중단됨

63가지 통계자료와 92가지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부문별 순위 및 종합 순위를 발표하고 있음

- 설문조사의 경우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지표 산출을 위해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⁶⁾를 대상으로 10점 척도의 설문을 실시하고 있음
- 설문조사의 경우 해당국가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순위의 우위 여부보다는 변화 추이에 주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 따라서 본고는 국가경쟁력 순위의 변화를 논의할 때는 순위의 차이만을 근거로 논의하고자 함

○ 국가경쟁력 순위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대만은 상승세, 일본, 홍콩,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6, 2017년에는 29위, 2020, 2021년에는 23위로 등락하였으나, 전체적으로 20위권 중하위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스페인의 경우 30위권 중반에서, 싱가포르의 경우 3위 전후에서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이 보합세의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탈리아와 일본은 전체적으로 2015, 2016년에 비해 2020년 이후 순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홍콩의 순위도 2020년대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대만의 경우 2015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9년 이후에는 급속한 상승세를 보임
- 1인당 GDP의 순위와 경쟁력지수 순위의 변화 추이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1인당 GDP의 순위와 경쟁력지수 순위의 변화 추이는 대만(▲), 한국(—),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등은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일본(—, ▽)과 스페인(▽, —)은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IMD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63개국 중 순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변화 추이
한국	25	29	29	27	28	23	23	27	—
대만	11	14	14	17	16	11	8	7	▲
이탈리아	38	35	44	42	44	44	41	41	▽
일본	27	26	26	25	30	34	31	34	▽
홍콩	2	1	1	2	2	5	7	5	▽
싱가포르	3	4	3	3	1	1	5	3	—
스페인	37	34	34	36	36	36	39	36	—

주: 음영은 〈표 1〉과 동일 연도를 의미함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호

6) 각국에 대한 설문조사는 해당 국가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 간 상대 비교의 타당성에 논란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조사 비교 방법이라 할 수 있음



3. 우리나라와 대만의 국가경쟁력 부문별 순위 변화

○ 대만의 1인당 GDP가 빠르게 상승한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국가경쟁력의 순위 변화를 부문별로 비교한 결과, 대만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경쟁력 순위가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표 3〉 참조)

- IMD 국가경쟁력 지표는 전체 순위뿐 아니라 이를 4개 부분(경제 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로 나누어 부문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음
 - IMD 국가경쟁력 지표를 구성하는 각 4개 부분은 다시 각각 5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각각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2019년 대비 2022년 순위의 경우 경제 성과와 인프라 부문은 순위가 상승했으나, 정부효율성 부문은 하락하고, 기업효율성 부문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대만의 경우 4개 전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균형있는 상승세를 보임

〈표 3〉 부문별 국가경쟁력 순위 비교(한국 vs. 대만)

(63개국 중 순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9~22 변화
한국	경제 성과	15	21	22	20	27	27	18	22	▲
	정부효율성	28	26	28	29	31	28	34	36	▽
	기업효율성	37	48	44	43	34	28	27	33	—
	인프라	21	22	24	18	20	16	17	16	▲
대만	경제 성과	11	15	12	14	15	17	6	11	▲
	정부효율성	9	9	10	12	12	9	8	8	▲
	기업효율성	14	16	15	20	14	12	7	6	▲
	인프라	18	19	21	22	19	15	14	13	▲

주: 3단계 이하의 국가경쟁력 관련 순위 변화는 횡보(—)로 판단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를 대상으로 상승, 하락을 판단함
자료: 상동

○ 2019~2022년 기간 동안 20개의 세부 항목의 경쟁력의 경우 대만은 ‘물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순위가 상승 또는 최소한 횡보한 것으로 나타났음(〈표 4〉 참조)

- 2019~2022년 기간 중 20개 세부 항목의 경쟁력 순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 성과 부문의 ‘국제 투자’, 정부효율성 부문의 ‘재정’, ‘조세 정책’, 기업효율성 부문의 ‘노동시장’ 등에서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대만은 대부분의 세부 항목에서 경쟁력이 상승 또는 횡보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우월한 추이를 보임
- 우리나라가 정체 또는 순위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순위가 상승한 세부 항목은 정부효율성 부문의 ‘제도 여건’, ‘기업 여건’, 기업효율성 부문의 ‘노동시장’, 인프라 부문의 ‘기술 인프라’, ‘보건 환경’, ‘교육’ 등 다수임
- 따라서, 2019~2022년 기간 중 대만은 1인당 GDP만 빠르게 오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국가경쟁력에 있어서도 ‘보건 환경’, ‘교육’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균형있게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4〉 2019~2022년 세부 항목별 국가경쟁력 순위 비교(한국 vs. 대만)

(63개국 중 순위)

구분		한국			대만		
		2019	2022	19~22 변화	2019	2022	19~22 변화
경제 성과	국내 경제	16	12	▲	25	4	▲
	국제 무역	45	30	▲	31	33	—
	국제 투자	30	37	▽	28	29	—
	고용	10	6	▲	25	28	—
	물가	53	49	▲	11	17	▽
정부 효율성	재정	24	32	▽	12	10	—
	조세 정책	18	26	▽	5	6	—
	제도 여건	33	31	—	19	8	▲
	기업 여건	50	48	—	30	21	▲
	사회 여건	39	35	▲	19	15	▲
기업 효율성	생산성	38	36	—	17	8	▲
	노동시장	36	42	▽	32	17	▲
	금융시장	34	23	▲	15	8	▲
	경영 활동	47	38	▲	4	5	—
	행태 가치	25	23	—	12	9	—
인프라	기본인프라	23	16	▲	39	37	—
	기술인프라	22	19	—	13	9	▲
	과학인프라	3	3	—	8	6	—
	보건 환경	32	31	—	29	26	▲
	교육	30	29	—	20	16	▲

자료: 상동



4.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은 사실상 정체되어 있으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선진국에서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상승세인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경제는 최근 들어 1인당 GDP의 순위를 통해서 보나, 국가경쟁력의 순위를 통해서 판단하나 모두 횡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따라서, 최근 우리 경제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을 추월하거나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현상은 우리 경제의 순위가 상승했다기보다는 이들 국가의 순위가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결국, 우리나라의 1인당 GDP와 국가경쟁력의 위상이 횡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임
-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재정, 노동시장 등 세부 항목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총 20개 세부 항목 중 하락세를 보인 4개 항목(국제 투자, 재정, 조세 정책,

노동시장)의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특히, 이들 항목의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 지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국제 투자’와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해외 자본 유치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과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정 건전성의 제고와 합리적인 조세 부담 체계 마련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사관계와 더불어, 인재 유치나 두뇌 유출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